



16면

익산시의회의 올 한해 의정활동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음 11월 6일) 제34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식품벤처펀드 120억 결성

도·농금원·농협·JB우리캐피탈 등 공동 조성... 전북 최고 도내 농식품경영체에 결성액 60% 72억원 이상 중점 투자



지난 15일 여의도 농업정책보좌금위원회에서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서해동 농금원장, 장경민 농협 전북영업본부장, 송재철 플레이스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0억원 규모의 '전북 농식품벤처펀드' 결성식이 열렸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가 도내 최초로 120억원 규모의 농식품벤처펀드를 결성,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촉진 및 성장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여의도 농업정책보좌금위원회(이하 농금원)에서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 서해동 농금원장, 장경민 농협 전북영업본부장, 송재철 플레이스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0억원 규모의 '전북 농식품벤처펀드(이하 농식품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

'농식품펀드'는 도, 농금원, 농협, JB우리캐피탈, 플레이스엠이 공동 출자하고, 웰투시벤처투자, NBH캐피탈이 공동 운용하게 되며, 도내 농식품경영체에 결성액 120억원의 60%인 72억원

이상이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농협의 출자는 전북도의 협력요청에 의한 것으로 농식품벤처펀드 출자 의무조건인 지자체 출자 30억원 중 10억원을 농협이 출자하게 됨으로써 예산은 절감하며,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게 됐다.

'웰투시벤처투자', 'NBH캐피탈'은 올해 7월 농금원 공모를 거쳐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계정' 운용사로 9월에 선정돼 '농식품펀드' 운용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펀드를 운용하게 될 대표펀드매니저인 '웰투시벤처투자' 정명 대표와 핵심 운용인력인 'NBH캐피탈' 고성재 상

무 등은 투자경력이 1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으로 메디프레스(지역농산품유통차캡슐및추출기제조), 위하들링(점심구독서비스), 프레시지(국내1위 밀키트), 조인앤조인(효도배합디저트 판매) 등 농식품 분야 투자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콘텐츠와 한류가 전 세계로 확장되며, 전 세계인들이 붐벼들면서, 김밥 등 한국 식문화 열광하기 시작했고, 2022년 국내 농수산물 수출액은 120억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농도인 전북 도마저도 전국적으로 투자를 나타내는 혁신형 농식품경영체가 부재한 상황으로 국내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촉진과 성장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벤처펀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다.

이에, 농식품부 차관 출신인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농식품벤처펀드를 총괄 운영하는 농식품정책금융기관인 '농금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고, 직접 농금원 관계자와 수차례 교류하며, 1년 간 공들인 끝에 이번 펀드 결성까지 이어졌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농식품펀드는 지역을 대표하는 모험자본으로 도내 농식품경영체들의 감증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다"며, "농식품펀드 이외에도 성장단계별, 특화산업별 벤처펀드를 조성해 자금 부족으로 창업에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지난 3월 '2023 전북 창업정책 한마당'에서 '민선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인기 레 벤처펀드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첨단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은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생명산업 거점화 '첫 발'

도, 대구경북의료재단·전북바이오진흥원과 첨단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위한 공동 협력 대응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목표인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선도 모델로 유명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 양진영 이사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올해 초부터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을 통해 공동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며, 진흥원과 재단이 메디바이오분야 기업의 공공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스타트업 육성에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상태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풍부한 생

명 자원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북도와 혁신기관인 재단과 진흥원이 새로운 사업 발굴 등에 함께 공동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재단, 진흥원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 공유 및 협력 △글로벌 선도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기회 및 공동연구 추진 △국책사업 및 공동 R&D 과제 발굴 추진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재단, 진흥원이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며 "공동 협력 체계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인 바이오 산업이 지역 주도로 육성되고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김재훈 기자

내년도 전북도정 사자성어 '백년대계'

(百年大計)

전북특자도 출범 원년 도민의 성공 의지 담아

김 지사 "내년에도 도전경성 정신 지속"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사자성어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선정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는 백년의 큰 계획이란 뜻으로, 2024년은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출범 원년이다.

도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끊임없이 노력해 도민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은 백년대계를 향해 출사표를 던지는 첫 해가 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가 128년의 역사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임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2024년에도 "도전경성의 정신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 3곳 최종 선정

'지역특화재생'에 남원·장수... '고령자 문화시설 구축'에 군산

전북도가 올해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3개소(남원, 장수, 군산)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남원, 정읍)에 국비 88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도시재생 공모에 총 5개소 국비 396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과 장수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공모에, 군산은 고령자 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특화재생으로 선정된 남원은 향교동에 전통문화 자산인 율령공예와 목공예 등 관련 인적자원과 특화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해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뉘는 춘향골새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5억원을 투자해 향교동 일원에 목공예특화 공동체 플랫폼조성과 골목길 및 생활가로 정비와 노후주택 및 노후상가 등을 정비하게 된다.

장수는 장계면 장계리 일원에 한우와 사과 등 장수특산물 'Red Food' 자원을 활용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673

억원을 투자해 'Red Food' 소비공간, 창업지원, 제품개발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된 장계시장을 정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해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인 인정사업은 군산시 나운3동이 전국 3개소 선정에 포함됐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해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및 웰스케어센터 등 고령자 건강·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고령자 체력증진, 건강상담 및 소공연, 강연, 생활체육 등 노인 취미활동 및 교양,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

도, 손씻기 등 위생 수칙 당부

전북도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주간(42주~46주), 환자 발생이 29명에서 57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아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중 하나로 감염력이 매우 강하며 12~48시간 내 보통,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을 일으킨다. 증상에 따라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며, 보통 1~3일이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드물게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감염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와 환자의 접촉을 통한 전파 또는 구토물이나 분변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해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이 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백신이 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 등 위생 수칙 준수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시민과 늘 함께하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시민의 의견을
함께해요, 익산!